사격 '탕 탕 탕' 금·은·동 쐈다

25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제19회 항저우 아시안게임 남자 사격 10m 러닝타깃 개인전에서 베트남의 응우옌 투안 안과 공동 3위에 오른 한국 정유진이 2발 점수로 승자를 정하는 '슛 아웃'을 치르고 있다. 결과는 19점으로 동메달. /연합뉴스

한국, 남자 10m 러닝타깃 단체전 금메달·개인전 동메달
25m 속사 권총·10m 공기소총 개인·단체전 은메달 획득

정유진(청주시청), 하광철(부산시청), 곽용빈(충남체육회)으로 구성된 한국 대표팀은 25일 중국 항저우 푸양 인후 스포츠센터에서 열린 대회 사격 남자 10m 러닝타깃 정상 단체전에서 1668점을 기록, 5개 참가국 가운데 1위를 차지했다.

이번 대회에서 나온 한국 사격의 첫 금메달이다.

또 한국 사격이 아시안게임 역사상 남녀 부문을 통틀어 10m 러닝타깃 단체전 종목을 처음 제패한 것이기도 하다.

러닝타깃은 사냥감처럼 옆으로 움직이는 표적을 맞히는 종목이다. 표적 속도가 일정한 정상 종목과 무작위로 속도가 달라지는 혼합으로 나뉜다.

한국은 2위 북한(1668점)과 총점은 같았지만, 이너텐(Inner Ten·10점 정중앙) 횟수에서 희비가 엇갈렸다. 한국은 39차례, 북한은 29차례 이너텐을 맞혔다.

정유진이 565점으로 팀 내 최다 점수를 올렸고 곽용빈(554점), 하광철(549점) 순이었다.

이날 먼저 경기를 마친 한국은 선두 경쟁을 벌이던 북한, 베트남 등이 후반 들어 갑자기 무너지며 '깜짝 금메달'을 품에 안았다.

북한에서는 마지막 유성준이 마지막 58~60번째 사격에서 9점, 7점, 8점으로 미끄러지며 한국에 동점을 헌납했다.

유성준은 548점을 기록했고 박명원과 권광일이 각각 561점, 559점을 쐈다.

개인전 성적도 좋았다. 공동 3위에 오른 정유진은 느구옌 투안 안(베트남)과의 슛오프에서 이겨 개인전 동메달까지 획득했다. 2018 자카르타·팔렘방 대회 남자 10m 러닝타깃 금메달리스트 정유진은 '디펜딩챔피언' 명예 회복에 나섰다.

박하준은 남자 10m 공기소총 개인전과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남자 10m 공기소총 단체전에서는 박하준, 김상도(이상 KT), 남태윤(보은군청)으로 구성된 대표팀이 은메달을 목에 걸었다. 1890.1점을 기록하며 한 국신기록을 세웠지만 1위 인도(1893.7점)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박하준이 632.8점을 쏴 팀 내 최고 득점을 기록했고, 김상도가 629.1점, 남태준이 628.2점을 쐈다.

단체전 2위에 올라 남자 10m 공기소총 개인전 결승에 직행한 박하준(KT)은 251.3점으로 은메달을 차지했다. 박하준은 1라운드에서 10발 합계 104.9점으로 성리하오(중국·105.3점)에 0.4점 차이로 뒤져 2위로 2라운드에 진출했다. 이후 박하준은 세계신기록을 세운 성리하오에 이어 2위를 기록했다. 이에 박하준은 하루에 은메달 2개를 목에 걸었다.

남자 25m 속사권총 단체전에서는 송종호(IBK기업은행), 김서준(경기도청), 이건혁(국군체육부대)이 1734점을 기록하며 은메달을 합작했다.

송종호는 580점으로 팀 내 최고 득점을 기록했고 김서준이 578점, 이건혁이 576점을 쐈다. 단체전 금메달은 중국(1765점), 동메달은 인도(1718점)가 따냈다. /연합뉴스

요트 윈드서핑 조원우 금메달 확정

12차례 레이스 중 11번 1등
RS:X급 '마지막 금메달리스트'

조원우(해운대구청)가 항저우 아시안게임 요트 남자 윈드서핑 RS:X급에서 대한민국 수상 종목 가운데 첫 번째로 금메달 획득을 확정했다.

조원우는 25일 중국 저장성 닝보 샹산 세일링센터에서 열린 대회 남자 윈드서핑 RS:X급 11·12차 레이스에서 모두 1등을 차지했다.

26일 13·14차 레이스가 남았지만 앞선 12번의 레이스에서 가장 적은 벌점(13점)을 쌓은 조원우가 우승을 하루 일찍 확정했다.

조원우는 2위를 기록한 1차 레이스를 제외하고 11번의 레이스 모두 1위를 차지하는 압도적인 경기력을 보였다.

대한요트협회에 따르면 1회 레이스 불참 시 벌점 7점을 받는다.

26일 펼쳐지는 2회 레이스에 모두 불참해도 한 번은 최종 성적에서 제외할 수 있어 산술적인 조원우의 벌점 최대치는 20점이다.

현재 2위인 태국 낫타퐁 포놉파랏의 벌점 총합은 27점이고, 여기에 가장 성적이 낮았던 1차 레이스(5등·벌점 5점)를 빼더라도 조원우를 넘을 수 없다.

조원우의 우승으로 이번 대회 우리나라 수상 종목에서도 첫 금메달이 나왔다.

이전까지는 조정 대표팀의 이수빈-김하영(이상 예산군청)이 여자 무타 페어 결승에서 딴 동메달이 전부였다.

조원우는 26일 14차 레이스를 모두 마친 후 금메달을 받을 예정이다.

요트는 사용하는 배나 보드의 모양에 따라 종목을 나눈다. RS:X급은 길이 286㎝, 무게 15.5㎏의 윈드서핑을 타고 바다를 가르는 경주를 펼친다.

서서 타는 종목으로, 몸으로 보드를 계속 통제해야 하고 가속을 위해 끊임없이 펌핑 동작이 필요해 윈드서핑에서도 육체적으로 가장 고된 종목으로 꼽힌다.

RS:X는 이번 아시안게임을 마지막으로 정식 종목에서 빠지는 터라, 조원우는 이 종목의 '마지막 금메달리스트'로 기록될 예정이다.

2002 부산 아시안게임 요트 금메달리스트로 조원우를 지도한 옥덕필 대표팀 코치는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제자가 다시 금메달을 따줘서 뭉클하다. 그것도 이제 사라지는 마지막 종목에서 우승해서 감회가 남다른 것 같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여자탁구 단체전 동메달 일본에 져 … 신유빈 2패

한국 여자 탁구가 한일전에서 패해 2회 연속 아시안게임 단체전 동메달을 따냈다.

오광헌 감독이 지휘하는 한국은 25일 중국 항저우의 궁수 캐널 스포츠파크 체육관에서 열린 2022 항저우 아시안게임 탁구 여자 단체전 준결승전에서 일본에 매치 점수 1-3으로 졌다.

이로써 한국 여자 탁구는 2018년 자카르타·팔렘방 대회에 이어 2회 연속으로 동메달을 수확했다.

아시안게임 탁구에서는 3·4위 결정전을 치르지 않고 준결승에서 패한 두 팀 모두에 동메달을 준다.

주전으로 나선 신유빈(8위·대한항공), 전지희(33위·미래에셋증권), 서효원(60위·한국마사회)에 더해 엔트리에 이름을 올린 양하은(65위·포스코인터내셔널), 이은혜(78위·대한항공) 등 5명이 메달을 받는다.

한국 탁구 최고 스타 신유빈은 처음 출전한 아시안게임에서 일단 동메달 하나를 확보했다. 그는 여자 단식과 여자 복식, 혼합 복식에도 출전한다.

한국 여자 탁구는 은메달을 따낸 1990년 베이징 대회 이후 33년째 아시안게임 단체전 결승에 오르지 못했다. /연합뉴스

페퍼저축은행컵 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 장애인·비장애인 배구 동호인이 한데 어울리는 '2023 페퍼저축은행컵 전국 어울림 한마당 배구대회'가 지난 23~24일 이틀간 광주시 서구 페퍼스타디움 등지에서 성공리에 경기를 치렀다. '일일 일꾼'으로 나선 AI페퍼스 선수단이 참가자들과 공을 주고받고 있다. 〈AI페퍼스 제공〉

KIA, '산 넘어 산' 험난한 원정 7연전

NC와 더블헤더 포함 4경기
키움·SSG와 원정 3연전

타이거즈 전망대

'산 넘어 산' KIA의 험난한 원정 7연전이 펼쳐진다.

KIA가 추석 연휴 기간 안방을 비운다. 26일 창원으로 가 NC 더블헤더 포함 4경기를 소화하는 KIA는 이후 29일 고척에서 키움을 만나고 30·31일에는 SSG와 원정 일정을 이어간다.

원정 7연전 강행군을 앞둔 KIA는 최악의 한 주를 보냈다.

지난 주 KIA의 성적은 1승 5패였다. 두산, LG, 한화를 상대로 패배를 남겼고 KT와의 주말 3연전에도 1승 2패에 그치면서 다시 5할 승률·6위가 됐다. 5위 SSG도 답답한 가을을 보내면서 KIA와 1경기 차에 불과하지만, 4위 두산은 4경기 차까지 멀어졌다.

성적도 성적이지만 KIA 팬들을 울린 건 바로 부상이다.

톱타자 박찬호가 손가락 인대 부상으로 타석에서 이탈하면서 무뎌진 창. 타선을 지키던 나성범에 이어 최형우까지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나성범은 19일 LG전에서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다. 8회말 2타점 적시타로 3-4을 만든 나성범은 폭투로 2루로 진루한 뒤 김선빈의 우익수 플라이 때 3루까지 내달렸다. 승리를 위해 한 루라도 더 가기 위한 중심타자의 헌신적인 플레이였지만, 나성범은 햄스트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24일 KT전에서는 '버팀목' 최형우가 쓰러졌다. 0-1로 뒤진 7회말 선두타자로 나선 최형우가 전력 질주를 하다가 1루수 박병호의 발에 걸려 넘어졌다. 병원으로 이송된 최형우는 좌측 쇄골 분쇄골절 및 견쇄관절 손상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받았다. 26일 쇄골 고정술을 받는 최형우의 재활에는 4개월 가량이 소요될 전망이다.

그라운드 안팎에서 팀을 이끌었던 두 베테랑이 큰 부상으로 이탈하면서 KIA는 순위 싸움의 동력을 잃었다.

그만큼 김종국 감독의 위기 관리 능력이 관심사다. 남은 자원으로 전력 극대화를 꾀해야 하고, 더 이상 부상 선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앞서 나성범은 자신의 파울 타구에 맞아 왼발 새끼 발가락 부상을 입었다. 팀 상황상 사령탑이 예고했던 것보다 일찍 수비까지 소화한 나성범은 결국 햄스트링 부상으로 시즌을 마감했다.

마운드에서는 이의리에 시선이 쏠린다. 항저우 아시안게임을 준비했던 이의리는 대표팀 소집을 하루 앞두고 '엔트리 탈락'이라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다.

KBO 전력강화위원회는 "손가락 부상에서 회복 중이나 대회 기간 최상의 경기력을 보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는 이유를 밝혔지만, '무조건 교체'를 위한 변명에 불과했다.

손가락 물집으로 한 턴을 쉬었던 이의리는 21일 한화전에서 마운드에 복귀했고 현재 몸상태도 이상 없다. 부상이라는 팩트가 아닌 '최상의 경기력을 보이기 어려울 것이다'라는 가정으로 엔트리를 교체한 사상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다.

이의리를 엔트리에서 제외하기 위한 '빌드업 과정'도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이의리의 교체 전날 KBO는 키움 이정후, NC 구창모의 교체 소식을 전하면서 "다른 대표 선수 중 부상의 영향으로 경기력이 저하됐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몸 상태를 면밀히 살펴 추가로 교체할 방침이다"고 언급했다.

물집 부상 이전부터 전력강화위원회에서 이의리의 교체를 준비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돌았다. 대체 선수까지 구체적으로 이름이 언급됐던 상황. 그리고 '부상 영향으로 인한 경기력 저하'라는 모호한 기준을 넣으면서 이의리 교체를 위한 판을 짠 모양새가 됐다.

21일 조계현 전력강화위원장과 류중일 아시안게임 대표팀 감독은 이의리의 등판을 직접 지켜봤고, '소문대로' 기다렸다는 듯 이의리를 엔트리에서 제외했다. 이의리 엔트리 제외 '발표'를 놓고도 팬들은 분노했다.

이정후·구창모의 교체 발표 당시에는 대체 선수 삼성 김성윤, NC 김영규의 명단이 동시에 발표됐다.

하지만 이의리의 탈락 보도자료를 내면서 대체 선수는 언급하지 않았다. '발탁을 원했던' 선수 명단을 공개 하지 않았던 위원회는 여론의 뭇매를 맞은 뒤 이날 오후 롯데 외야수 윤동희를 대체 선수로 선발했다.

야구 선배들의 억지 논리와 비상식적인 행태는 KIA와 KBO 마운드를 책임져야 할 이의리는 물론 금메달 목표를 위해 '원팀'으로 뛰어야 하는 대표 선수들에게 상처를 남겼다.

몸 상태에 이상이 없는 이의리는 NC전 등판을 준비하고 있다. 대표팀 논란 속 시선이 쏠릴 수 밖에 없는 부담 많은 등판. 이의리가 평정심으로 선발 임무를 완수하고 위기의 팀을 지켜낼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